

# 찍고 붙이고 먹고... 언택트 뷰티시장 '스마트한 외모 관리'

**타키온비엔티 AR기반 '티커' 앱  
실존 코스메틱 제품 AR로 체험**

**아모레퍼시픽 웨어러블 피부측정기  
땀나도 잘 안떨어져 안정적 측정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발표**

뷰티 시장에 착용형 기기(웨어러블)와 증강현실(AR)이 결합된 비대면 서비스, 전문화된 이너뷰티 제품 등이 잇따라 등장하며 시장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뷰티테크 기업 타키온비엔티는 최근 AR 기반의 뷰티 라이프 플랫폼 '티커(Ticker)' 앱을 출시했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실존하는 코스메틱 제품을 AR로 체험해볼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피부 톤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테스트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 편집할 수 있다.

AR 메이크업은 불황 속 화장품 유



티커 앱 CF '자매편' 캡처 이미지.

/타키온비엔티

통 산업에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화장품을 발라보고 비교, 선택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키온비엔티 측은 "지난 3월 말 출시한 티커가 약 3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60만을 돌파했으며, 10주간 구글 플레이스토어 뷰티부문 인기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나만의 아름다움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1834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이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피부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대표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매장이나 에스테틱에 가지 않

도 피부 상태 판단이 가능한 초박막 웨어러블 피부 측정 기기를 개발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관련 내용은 저명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

학술지에 따르면, 해당 피부 측정 기기 기술은 땀이 나도 잘 떨어지지 않고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아 안정적이고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장시간의 이동이나 운동 상황에서도 피부 상태를 지속 측정·분석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 기기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피부 변화를 추적 관찰해 맞춤형 데이터를 확보, 특수한 환경이나 피부 상태에 적합한 화장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너뷰티(먹는 화장품) 시장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바이탈뷰티'라는 브랜드를 내세우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바이탈뷰티에서 식

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셰이크 '메타그린 셰이크미'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바디 리프팅 크림 '메타그린 바디핏 크림'을 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바이탈뷰티의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및 제품력 강화를 위해 기술 연구원에 별도 연구센터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또, LG생활건강은 '하나미 콜라겐 앰플', 참존은 이너뷰티 브랜드 '라임존'을 론칭해 '참 콜라겐 프리미엄', '참 콜라겐 구미', '참 콜라겐 바' 등 제품 형태 다양화에 나섰다. 이밖에 뉴트리원은 '비비랩 콜라겐'을, 클리오는 '트루알액'을, 유니베라는 '빌리브뷰티 콜라겐' 등을 선보이며 이너뷰티 시장에 하나 둘씩 참전하고 있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모 관리도 언택트,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뷰티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비비안-KBO, 컬래버 '구단 드로즈' 출시

SSG 등 8개 구단 이미지 형상화

비비안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식 인증한 소속 구단 컬래버레이션 드로즈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비비안은 작년 7월 KBO와 라이선스 사업 계약 체결 이후 1차 컬래버 굿즈인 KBO 패션마스크를 선보이며 야구팬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비비안은 야구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2차 컬래버 굿즈로

KBO 드로즈를 선보인다.

'비비안XKBO 콜라보 드로즈'는 올해 창단한 신세계그룹의 SSG 랜더스를 포함한 8개 구단(NC, KT, 키움, KIA, 롯데, 삼성, SSG, 한화)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트렌디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특히 각 구단을 상징하는 모양의 아웃밴드와 시그니처 컬러를 차용, 소장 가치를 높였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이대서울병원 '타비시술' 실시기관 승인 취득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1일 개원 2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피적 대동맥 판막삽입술(TAVI·타비) 실시기관 신규 승인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로 알려진 '타비시술'은 고령자나 수술 위험성이 높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의 가슴을 열지 않고 하부동맥을 통해 기능이 저하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시술이다. 타비시술은 기존 수술적 인공 판막 교체술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고 통증과 흉터가 적어 시술 후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치료 효

과가 입증되어 외국에서는 특히 고령 환자에서 수술 위험도가 높은 경우 1차적으로 타비시술을 권고하고 있다.

타비시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아 ▲연간 수술적 대동맥판막 교체술 10건 이상, 경피적 대동맥 및 분지혈관 스텐트-이식 설치술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전문의료진(심장혈관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확보 ▲관련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만 시행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 대웅제약 코로나 신속항원 진단키트 공급계약

대웅제약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스타트업 켈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켈스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인 '올체크 코로나 항원검사 키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허가단계에 있어 이르면 3분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양사는 내다보고 있다.

올체크 진단키트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사람의 비인두에서 채취한 도말 내 바이러스의 존재유무를 진단해 감염 여부를 15분 내에 판단할 수 있다. 민감도 92.11%, 특이도 99.52%의 우수한 성능을 임상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올체크 키트는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역시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 한미약품, 먹는 항암신약 '오락솔' 보완

추가적 분석 데이터 美 FDA에 제공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 수집도 제안

한미약품이 개발한 먹는 항암 신약 '오락솔'이 새로운 임상 디자인에 돌입한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수렴한 오락솔 보완요구서(CRL)와 관련, 타입-A 미팅을 진행하고 CRL에 기재됐던 보완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미팅에서 아테넥스는 오락솔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환자 하위 그룹의 전체 생존기간(OS)을 포함한 추가적인 분석 데이터를 FDA에 제공했다. 또 새 임상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 수집도 제안했다.

FDA는 전이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오락솔 개발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했으며, 적절히 설계되고 수행될 임상을 통해 CRL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아테넥스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아테넥스는 올해 4분기에 FDA에 제시할 새 임상 의 최종 디자인

을 모색하고 있다.

루돌프 칸 아테넥스 최고과학책임자(CMO)는 "이번 미팅에서 FDA가 밝힌 오락솔 개발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며, FDA와 협력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오락솔이 승인받게 된다면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락솔은 지난 2018년 미국 FDA로부터 혈관육종, 2019년 유럽 의약품안전청(EMA)으로부터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강스템바이오텍,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위탁개발생산 사업 확대 기대"

강스템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처리·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 달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추가로 획득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통해 자체 개발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최근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위탁개발생산(CDMO)사업 확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



강스템바이오텍 연구실 모습.

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1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뛰어난 연구역량 및 생산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엑소솜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리모리스와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mRNA 도입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회사인 큐라미스와 CDMO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 피부염치료제 'D-판테놀'

동아제약은 텍스판테놀 성분의 피부염치료제 'D-판테놀(사진)' 연고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D-판테놀 연고의 주성분인 텍스판테놀은 피부 자극을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며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D-판테놀 연고는 급·만성 피부염뿐 아니라 아기의 기저귀 발진, 수유 중인 여성의 유두균열, 화상 및 햇볕에 탄 데(일광피부염)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담은 튜브는 PE 재질로 씌어져 연고가 새어나오는 문제가 없다. 또한 첨가제로 시어버터를 함유하여 피부에 바를 때 끈적이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

사용방법은 상처부위를 청결히 한 후 1일 1~2회 바르면 된다. D-판테놀 연고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